

# 첫 경기는 탐색전... 발톱 숨긴 호랑이

KIA, 삼성에 2-4 패

경기 결과보다 컨디션 올리기 중점  
브룩스 선발...커브 등 변화구 점검  
불펜 하준영·전상현 구위 위력적

6회 라인업 교체하며 전력 구상  
김선빈, 멀티히트 활약

23일 한화와 연습경기 2차전

KIA 타이거즈가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KBO 연습경기 첫 경기에서 2-4로 졌다.

팀 간 첫 대결이었지만 윌리엄스 감독의 이야기대로 '하던 대로' 전력 점검이 이뤄졌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시간을 두고 보고 있다. 하던 대로 계속하겠다. 개막에 맞춰 계속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선수단 점검에 맞춰 9이닝을 풀었다.

상대 선발 백정현이 6이닝을 소화한 반면 KIA 선발로 나선 브룩스는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자신의 특기인 체인지업도 두 개만 구사하면서 호흡을 끝냈다.

박찬호(유격수)-김선빈(2루수)-최형우(지명타자)-나지완(좌익수)-장영석(3루수)-김주찬(1루수)-한승택(포수)-김호영(중견수)-최원준(우익수)으로 꾸린 선발 라인업도 6회 이후 대폭 교체하면서 앞선 '홍백전'처럼 경기를 전개했다.

지난 18일 홍백전 도중 파울 타구에 발등을 맞은 터커는 아예 경기에 투입하지 않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주목한 마운드에서는 선발 브룩스와 돌아온 부상병들이 눈길을 끌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그라운드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투수들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 연습경기를 통해서 개막을 준비하겠다"고 투수들의 움직임을 강조했었다.

선발 브룩스와 함께 팔꿈치 부상으로 우려를 산 하준영, 전상현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며 윌리엄스 감독의 고민을 덜어줬다.

브룩스는 4이닝을 4피안타 4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며 KBO리그 다른 팀을 상대로 한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1회 선두타자 김지찬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한 브룩스는 박해민을 유격수 직선타로 돌려세웠다. 구자욱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한 뒤 살라디노에게 연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속안타를 맞았지만, 김동엽을 2루수 플라이로 잡고 1회를 끝냈다.

2회와 3회는 탈삼진 하나씩 겹쳐서 깔끔한 삼자범퇴.

그러나 4회 1사에서 살라디노의 타구가 펜스까지 쫓아간 중견수 김호영의 글러브를 비껴가면서 3루타가 됐다.

브룩스는 김동엽의 방망이를 헛돌게 해 두 아웃은 만들었지만 김현곤의 중견안타로 실점을 했다. 이어 이성규에게 4번째 탈삼진을 뺏아내면서 추가 실점 없이 등판을 마무리했다.

이후 하준영과 전상현이 나란히 5회와 6회 마운드에 올랐다.

홍백전에서 두 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던 하준영은 수비수들의 도움 속에 세 번째 등판을 깔끔한 삼자범퇴로 끝냈다.

첫타자 강민호와 승부에서는 1루수 김주찬이 까다로운 타구를 잡아 하준영에게 넘겨줬고, 이어진 김재현과의 대결에서는 좌익수 나지완이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책임졌다.

야수들의 도움이 힘을 얻은 하준영은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이어 등판한 전상현도 위력적이었다. 전상현은 유격수 파울플라이로 첫 아웃카운트를 만든 뒤 연속 삼진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했다.

한편 KIA는 1회 박찬호의 유격수 내야 안타에 이어 김선빈의 2루타로 선취점을 만들었지만 9회 이우성의 2루타와 최정용의 좌전 안타 그리고 유민상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는 데 그치며 2-4로 졌다.

KIA는 23일에는 대전으로 가서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 2차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우린 준비 끝” 윌리엄스 감독 ‘자신만만’

선수들 득점 때마다 세리머니 격려  
“144경기 어떤 변수도 대응 가능”

낮선 환경, 낯선 분위기 하지만 윌리엄스 스타일대로 간다.

KIA 윌리엄스 감독은 빅리그에서의 화려한 이력과 타이거즈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이라는 타이틀로 팬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유의 빅리그식 소통과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은 윌리엄스 감독은 홍백전 등을 통해서도 과감한 승부와 시프트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큰 기대 속에 2020시즌을 기다렸던 윌리엄스 감독에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우여곡절 21일 KBO 연습경기 일정이 시작됐지만 계산은 복잡해졌다. 새로 적응해야 하는 것들도 많다.

그라운드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고, 경기 중 선수단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하이파이브도 할 수 없다.

변수 많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상황에 맞춰 하면 된다”며 자신있는 모습이다.

첫 연습경기가 열린 21일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윌리엄스 감독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과 마주했다.

인터뷰 전까지 5월 5일 개막, 144경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그들의 선택에 따를 것이다. 우리는 풀 시즌을 할 준비는 되어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유동적인 부분이 많은 시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지만 모든 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수인 만큼 상황에 맞게 길을 가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대신할 것을 생각해보겠다”던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새로운 인사법도 선보였다.

KIA의 공격이 전개된 1회말. 내야 안타로 출루한 선수타자 박찬호가 김선빈의 중견수 키 넘기는 2루타 때 홈에 들어오자 윌리엄스 감독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편채 손을 흔들었다.

선수들도 이내 같은 포즈로 턱아웃에 들어온 박찬호를 맞았다.

그리고 9회 두 번째 득점이 나왔을 때도 윌리엄스 감독은 같은 포즈로 득점자를 맞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에 대해 “하와이식 인사”고 설명했다.

샤카라고 불리는 인사로 “아주 좋다”, “잘한다”, “멋있다” 등의 뜻을 담고 있다.

턱아웃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은 윌리엄스 감독은 멀리 미국에서 KIA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호평도 받았다.

미국에서 중계를 지켜본 아들이 “그 세리머니 멋있다”라며 아버지를 응원했다는 후문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다음달 5일 개막

총 144경기...KIA, 키움과 개막전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날 기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2020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KBO가 21일 이사회를 열고 정규시즌 개막 일정을 5월 5일로 확정했다. 예정된 144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대신 올스타전을 취소하고, 포스트 시즌 일정을 축소했다.

또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개막 초반에는 무관중 경기가 실시된다. 이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본 뒤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KIA는 5월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과 2020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KBO는 앞서 정규리그 개막은 발표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개막일 전까지 못 치른 경기는 추후 재편성한다.

경기수는 구단당 144경기를 유지한다. 단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리그가 중단될 경우, 경기수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7월로 예정됐던 올스타전은 취소했다. 포스트 시즌 준플레이오프는 3선승제에서 2선승제로 축소했다.

시즌 중 우천 취소가 나올 경우 더블헤더(7, 8월 제외) 및 월요일 경기가 이뤄진다.

또 더블헤더가 진행될 경우에는 엔트리를 1명 추가하고, 2연전이 시작되면 확대 엔트리(5명)를 앞당겨 시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LPGA 챔피언십

이정은·김세영 출전

다음달 14일 양주 컨트리클럽



이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조리 멈춘 프로 골프 투어 가운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맨 먼저 문을 열기로 하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정상급 한국 선수들도 들쭉날쭉하고 있다.

고진영(25), 박성현(27), 이정은(24), 김세영(27), 박인비(32), 김효주(25), 유소연(28), 허미정(30) 등 LPGA투어 정상급 한국 선수 대부분은 한국에 머물면서 훈련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LPGA투어 대회가 중단되면서 길게는 5개월, 짧게는 2개월이 넘도록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고진영, 박성현, 김효주는 LPGA투어에서도 올해 한 번도 대회를 뵈 적이 없고, 가장 최근에 대회를 치러본 박인비와 이정은도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2개월이 넘도록 훈련만 하는 중이다.

답답한 차에 오는 5월14일부터 나올 동안 경기 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KLPGA 챔피언십이 열린다는 소식에 이들 LPGA투어 스타 플레이어들도 당연히 관심을 보인다.

아무리 연습량이 많아도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실전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작년 LPGA투어 신인왕 이정은은 KLPGA 챔피언십에 나가겠다는 뜻을 매니지먼트사에 밝혔다.

김세영도 KLPGA 챔피언십에서 팬들 앞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회 출전이 경기력 회복에도 좋지만, 후원 기업의 지원과 팬들의 응원에 대한 보답은 대회에 출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멋진 스윙으로 위안과 희망을 주겠다는 포부도 겹쳤다. 대회 상금을 계기로 코로나19 성금을 내겠다는 생각은 기본이다.

박성현과 김효주도 KLPGA 챔피언십 출전을 검토하고 있다.

KLPGA도 이들 월드 스타의 출전은 반기는 분위기다.

팬과 미디어의 관심이 더 커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인비와 고진영은 KLPGA 챔피언십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인비는 “내가 출전하면 허위 시드권 선수 한 명이 출전하지 못한다”고 출전을 고사했다.

현역 시절에 대회 출전조차 쉽지 않았던 남편 남기협 코치의 조언도 한몫했다.

고진영 역시 “형편이 어려운 선수한테 출전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6월께 재개할 LPGA투어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들 LPGA투어 선수들이 KLPGA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데는 걸림돌은 없다.

KLPGA 챔피언십 출전 자격은 영구시드권자, 최근 4년 메이저대회 우승자, 최근 2년 투어 대회 우승자, 작년 상급랭킹 60위 이내, 그리고 세계랭킹 30위 이내 선수 순이고 대부분 이들 자격 가운데 하나 이상은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